

16/01/31(주) 주일예배 / 제목 :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시 127:1~2) p.897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서론** / 대학 입시철만 되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능 시험 성적표를 보고 크게 실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시험을 보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막상 수능을 볼 때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시험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인생이 자기 계획과 자기 노력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야 사람들은 “아, 인생이 내 계획이나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이 바로 설 수가 없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깨우쳐 줍니다. 이 시편 127편은 누가 썼나요? 솔로몬입니다. 그가 썼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실감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가장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물,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3관왕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절실히 느낀 바를 고백한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만약 ~ 아니하시면 ~ 헛되도다” 는 말이 반복됩니다. 천하에서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든 일이 허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집’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가정을 의미합니다. ‘성’은 성읍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주만물의 운행 등 세상만사를 좌지우지하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인생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 주권 신앙과 하나님 섭리 신앙을 고백하는 성경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사무엘상 2장 6~7절에 나오는 **한나의 신앙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삼상 2:6~7)**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데다 /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다” 이 말씀은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는 제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인생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는 어떠한 인생이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론** / 인생에는 어떠한 인생이 있을까요?

**1.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은 인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을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인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이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노력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본문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2상)**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사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남는 것이 없고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과오를 범한 사실을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학1: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물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돈 자루에 쌓이기는커녕 구멍난 돈 자루에 넣는 것처럼 돈이 쌓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것을 인생 말년에 통절하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전 1: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2: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무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눅 12:16~21).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차고 넘쳐 창고를 증축하고 잔뜩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여 놓은 것입니다. 그 부자는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자랑하며 남은 인생동안 잘 먹고 잘 살자 편히 쉬면서 즐기자며 독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 다음에 오는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십시오.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신앙으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는 어떠한 인생이 있을까요? 1.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요? 이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2절하) “...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도

다” 여기에서 ‘잠’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이 복입니다. 그 자체로도 복이지만 건강하니까 잘 자는 것입니다. 만사가 평안하니까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또한 삶이 복잡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잠을 설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일도 잘 되고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에 맡기고 안심합니다. 사실은 위험 요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능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의뢰한다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네 명철을 의미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행주의입니다.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으로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했다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시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뒤늦게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머리에 기름을 받았을 때 다윗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제쳐놓은 선택받지 못한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3)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주권을 믿는다면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더욱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우리가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실제로 놀라운 일을 기적같이 체험한 사람이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증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바로 왕이 남자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는 악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임을 확신했기에 그를 숨깁니다. 그러나 사내아이라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더 이상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갈 상자에 어린 모세를 눕히고 나일 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모세의 누이에게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갓난아이의 엄마라면 요게벳처럼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모세의 부모가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나일 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후왕궁~~ 이 갈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양자로 삼겠다고 걱정합니다. 때맞춰 나타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결국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정말 극적으로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그후 젖을 떤 모세는 나중에 궁궐로 들어갔지만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서게 하셨습니다. 이는 요게벳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최선을 다한 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 모두는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꼭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요약정리** / 인생에는 어떠한 인생이 있을까요?

1.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 1) 의뢰해야 합니다.    2)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기도해야 합니다.